

건강을 요리하고·이야기하고·나누다

사노피 CHC, '랜선 건식 쿡북' 사내 캠페인 성료

“직접 만들며 건강한 식생활 배우고 나눠요”

- * 코로나 19 로 인한 아동 '집콕 비만' 및 불균형 식사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 위한 캠페인 진행
- * 푸드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줌(Zoom) 건강요리 클래스 및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활용
점심회식 등 비대면 행사로 진행
- * 아동을 위한 건강 추천 요리 응모, 영양강정 만들기 등 임직원 참여 건강 꾸러미로 환산해 아동보육기관 기부 예정

대한민국 서울, 2021 년 10 월 20 일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대표 파비앙 슈미트, 이하 사노피 CHC)가 2021 년 '퍼포즈 데이(Purpose Day)'를 맞아 지난 19 일 '랜선 건식(건강한 식생활) 쿡북' 온라인 사내 캠페인을 진행했다.

'퍼포즈 데이'는 매년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노피 CHC 부서의 전사적 CSR 프로그램이다. 올해의 캠페인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 '집콕 비만' 및 불균형 식사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과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게더타운(Gathertown)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 부 행사에서는 임직원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직접 배우고 실천하자는 취지로 유명 푸드인플루언서 이난우 요리연구가와 함께 줌(Zoom)을 활용한 쌍방향 클래스로 팟타이, 영양강정 등 건강 집콕 요리를 만들었다. 이어진 2 부 행사는 '게더타운(Gathertown)'을 통해 실제 회식 장소처럼 꾸민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참여, 생생한 분위기에서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며 코로나로 장기간 재택근무를 하는 동료들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캠페인의 취지에 맞춰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아동을 위한 건강 추천 요리' 이벤트를 마련해 임직원이 추천하는 건강요리를 선정하고, 레시피 카드를 제작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참치 토마토 파스타, 병아리콩 강정 등을 비롯해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다수 모였다.

사노피 CHC 사업부는 행사 게시물 댓글, 건강 요리 추천, 건강 집콕 요리 만들기 등 퍼포즈 데이 캠페인 전 과정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활동을 세노비스 키즈 비타민, 영양강정 등이 담긴 건강 꾸러미로 환산해 아동보육기관의 아동 약 100 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파비앙 슈미트(Fabien Schmitt)

사노피 CHC 사업부 대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등원, 등교 등이 중단되며 아이들의 식생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올해의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임직원과 가족,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을 포함한 많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